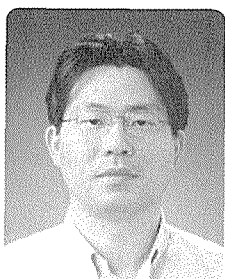


이라크인의 우상(偶像) ‘사담 후세인’



장 세 원
명지대학교 교수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지난 2001년 10월 15일부터였다. 그 날 이라크 전역에서 사담 후세인의 신임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사담 후세인 개인에게 있어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작게는 중동, 크게는 세계 정치질서와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서 세계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투표결과는 예상대로 사담 후세인에 대한 100% 찬성으로 종결되었다. 아무리 덕망 있는 세기적 지도자일지라도 대중으로부터 100% 찬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렇게 빈틈없는 이상적인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나는 사담 후세인의 우상화 작업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의 창시자 사도 ‘무함마드’는 무엇보다 우상(偶像)을 강력히 금지시켰다. 그것은 중세 아라비아 반도에 우상숭배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도래 이전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首都) 메카에는 360여 개의 우상이 길 거리에 모셔져 있었으며, 우상 순례를 위해 아랍과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상당수의 인파가 매년 메카에 운집하였다. 이후 이것은 이슬람 신자 즉, 무슬림들의 메카 성지순례의 기원이 된다.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깨달은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통해 유일신 사상을 설파했으며, 인간을 형상화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시켰다. 거기에는 무함마드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늘날 그의 형상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슬람 사원에서조차 그를 기리는 초상화 한 장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슬람의 우상화 금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 조직에 의해 세계적 유적인 ‘불상’마저도 파괴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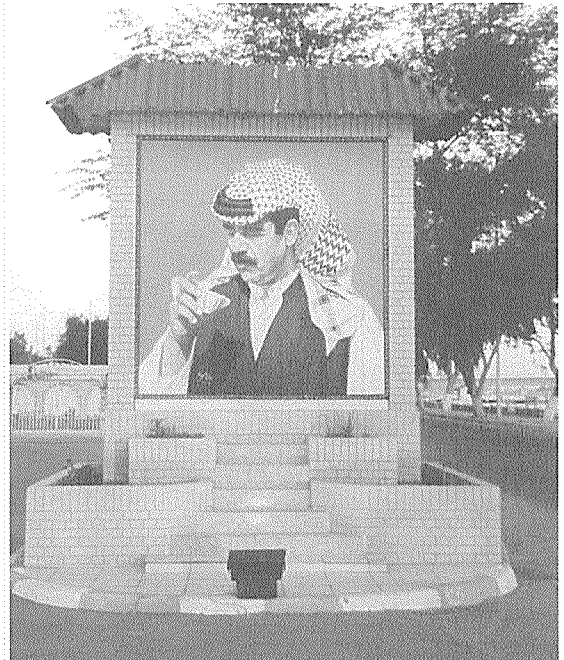
가는 곳마다 지도자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보는 곳마다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있으며, 길거리에는 그들을 칭송하는 문구의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이런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숨은 야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세습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슬람을 표방하는 많은 수의 아랍국 가들이 지도자 개인의 이상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반미(反美)와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에서 지도자 이상화 작업은 더욱 심각하다. 가는 곳마다 지도자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보는 곳마다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있으며, 길거리에는 그들을 칭송하는 문구의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이런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숨은 야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세습에서 볼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전통 왕정국가의 세습은 간과하더라도, 공화정을 내건 일부 국가에서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제 아랍 국가들의 세습적 권력이양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이상화 작업을 더욱 개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자의든 타의든 386세대의 일원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토양에서 양육되었다. 이러한 나의 사상적 이력 때문에 나는 아랍인들의 민족주의 욕구와 반제국주의 자세를 누구보다도 찬성한다. 그러나 왜 민족주의 정신이 개인의 이상화로 변질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라크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인 듯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담 후세인 대통령께서는...”. 이라크 국영 제1 TV의 저녁 뉴스의 시작 멘트이다. 이라크 국영 2TV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저녁 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뉴스는 사담 후세인과 관련된 기사로 채워졌으며, TV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사담 후세인 사진이 등장하고,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뮤직 비디오가 심심찮게 방영되며,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구들이 화면을 장식한다. 심지어는 문화계 소식에서 사담 후세인이 직접 집필했다고

알려진 소설 “자비바와 말리크”가 연극으로 각색되어 연극무대에 올려지고 있으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크게 다루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사담 후세인이 등장하지 않는 분야가 없었고, TV를 켜는 순간부터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대학교 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놀랍다. 상아탑으로 대변되는 대학은 으레 현실 정치에 대한 신선한 비판세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라크의 대학은 최소한 외관상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강의실 출입문과 외벽 그리고 대학 구내 쉼터 등 대학 전체가 사담 후세인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들과 현수막으로 즐비하다. “나암! 나암! 사담 후세인”(찬성! 찬성! 사담 후세인), 지난 신임 투표에서 후세인을 승리로 이끌었던 문구들이 대학 여기저기에서 눈



에 띄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이 없었다면, 그들의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대학생들은 그들의 고유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신선한 비판의식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담 후세인은 문화와 교육의 지도자일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확고한 자리 매김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의 수호자”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지난 1월 17일 걸프전 발발 기념일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은, 중세에 십자군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과 그들의 만행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도(領導) 하에 예루살렘을 수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걸프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대한 자신의 저항이 곧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신(新)십자군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정치에 종교를 교묘하게 접목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난 피로 이슬람의 성전 “꾸란” 구절을 써 내려가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그가 3년 동안 자신

의 몸에서 흘린 피로 쓴 6666행에 달하는 꾸란 구절을 완성하는 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종교 분야에 있어 그의 이상화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바그다드 시(市)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담 후세인 타워”에 올라가면 가장 눈에 띄는 거대한 사원을 목격할 수 있다. 사원이 완성되기까지 아직 10년의 공기(工期)를 남겨두었다는 이 곳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사담 후세인 사원”이다. 사원 내부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편의시설 - 이슬람 교육 기관, 이슬람 문화센터, 이슬람 관련 정부부처 등 - 이 건립될 것이라고 한다. 사원 건립을 통해서 이라크가 이슬람 역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써 이슬람의 모태이며, 인류문명의 발상지이자, 현대 중동지역의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임을 확고히 하고, 이 지역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슬람과 중동 지역의 수호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화려했던 바그다드의 환락기는 사라졌고, 여성들의 차도르(아랍어: 히잡) 착용율이 높아졌으며, 남성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조혼(早婚) 풍습이 생겼다. 과거 이슬람 율법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아랍국가였던 이라크가 이제 이슬람 보수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사담 후세인은 강력한 이슬람 종교 교육 정책과 신앙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먼저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풍기 문란 조장행위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였고, 매춘행위를 근절시켰다. 그 결과 화려했던 바그다드의 환락기는 사라졌고, 여성들의 차도르(아랍어: 히잡) 착용율이 높아졌으며, 남성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조혼(早婚) 풍습이 생겼다. 과거 이슬람 율법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아랍국가였던 이라크가 이제 이슬람 보수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이슬람 근본주의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이슬람을 통한 국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정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과거 역사의 사건과 인물을 도용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먼저 이라크 전국에 산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들의 재건 사업에 열을 올렸다. 그는 경제악화가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도 지난 10년간 유적 재건사업에 18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소요하였다. 물론 재건 중인 대부분의 유적이 인류사에 있어 중요한 세계적 유산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런 사업을 통해 사담 후세인이 노리고 있는 개인 우상화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고대 바빌론의 왕들이 그랬듯이, 유적 복원 작업 시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기리는 문구를 새겨 넣은 벽돌을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벽돌에는 “이라크 공화국 대통령이시며, 위대한 이라크의 주인이신 사담 후세인의 치하에, 역사의 도시 바빌론의 재건 사업이 완성되다. 1999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즉 사담 후세인은 유적 재건 자체보다 자신의 존재와 치적을 현세뿐만 아니라 후대에 널리 떨치려는 개인적 욕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역사적 지도자로서 그의 우상화 작업은 유산 재건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땅에서 탄생한 역사적 인물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전설적 제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살라딘’ 장군이 사담 후세인의 파트너로 자주 등장한다. 이라크 전역에서 사담 후세인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용했던 전차에 앉아 있는 동상과 살라딘과 마주보거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의 사진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살라딘 장군은 중세 십자군과의 전쟁에서 이슬람의 대승을 가져왔으며 예루살렘을 수복한 장수이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수복이후에도 십자군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기독교 유럽인들에게 적군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지도자로서 간주되고 있는 인물이다. 자비와 용서의 상징인 살라딘은 공교롭게도 사담 후세인의 고향 “티크리트” 출신이어서, 사담 후세인은 그와의 지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바로 현대판 살라딘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라크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천혜의 수자원, 풍부한 석유, 자궁심의 이라크인을 보면서 이라크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담 후세인의 극에 달한 우상화 작업을 보면서 이라크 미래의 씩씩한 뒷맛을 남겼다. 이라크 각지에 건설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을 감시하는 장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